

청학동의 문화와 복식에 관한 연구

이 경 화 · 한 명 숙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I. 서 론

청학동은 지리산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곳으로서 외부 세계와 교류 없이 그들만의 종교와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청학동 사람들은 “갱정유도교”라는 종교를 믿는데 이는 유불선이 삼위일체하여 마음은 선(仙)이요, 육체가 있으니 불(佛)이요, 행위가 있으니 유(儒)라는 것으로써 현재의 마을형성에 주축이 된 종교이다. 이들은 긴머리를 땀아 늘어트린 소년 소녀들, 흰두쿠마기와 도포에 한복을 입고 갓을 쓴 차림이며, 수도생활, 외례제도, 서당식 한문교육 등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요소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종교가 인간의 생활방식과 사회체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인간의 사회, 문화체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학동의 문화를 파악하고, 의복행동을 연구함으로써 청학동의 문화와 복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주로 하고 의복행동에 있어서는 사진집을 통한 연구 및 본인이 실제로 답사하여 조사한 내용을 병행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청학동의 문화

청학동은 해발 800m고지인 지리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소위 도인촌(導因村)이라고 불리는 이 청학동 사람들은 유불선(儒佛仙) 갱정유도교(更定儒道敎)를 신봉하는 자로써 한국전쟁 이후 이곳으로 모여들어 마을을 이루었다.

갱정유도는 유불선과 동서학을 합일하여 현대문화의 부조리면을 배제하고 인의예지의 인간본성을 수양하여 인간윤리를 실천한다는 것이다. 갱정유도(更定儒道)의 신앙대상은 선당궁(仙堂宮)이며 기본경전은 부응경(符應經)으로써 이는 전통윤리의 덕목들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또한 그들은 평상시 기상과 함께 영선도인법(靈仙導人法)이라는 특수한 운동을 한다. 이는 목구멍을 통해 신선(神仙)기운(氣運)을 체내로 인도한다는 의미의 36가지 동작의 새벽체조이다. 그리고 해마다 음력 10월 3일에 민족혼을 일깨우며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대화합의 장을 여는 의미로 삼성궁(三聖宮)에서 제를 올린다.

이러한 교리에 따라 청학동 사람들은 외부세계와 담을 쌓고 유교적인 전통생활방식을 고수

하며 살아왔다. 이들은 머리를 땅거나 상투를 틀고 흰옷을 입고 생활하는 것을 당연시하며, 서당에서 훈장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청학동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자 외부사람들의 드나들이 잦아지면서 교통의 발달과 기술도입으로 인하여 청학동의 경제구조는 농경위주에서 상업위주로 전환되면서 도인촌이라기 보다 관광촌이라 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Ⅲ. 청학동의 복식

청학동 사람들은 갱정유도에서 규정된 독특한 의복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복식과 머리모양이다.

첫째, 복식의 경우는 남녀 모두 흰색의 전통 한복을 착용하고 고무신을 신었으며 남자의 경우 청색의 조끼를 입거나 외출시에는 어른들만 흰색도포를 입었다. 또한 남녀복식 모두 관혼상제에도 전통 복식을 입었다. 청학동 사람들이 한복을 입는 이유는 돌아오는 세상은 우리나라가 도덕문명으로써 세계의 지도국이 되고 부모국이 될 것이므로 자연히 우리의 전통의복이 세계의 복장이 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식은 갱정유도의 교도로서의 상징적 표현들이며 그들의 정신을 표현하는 무언의 전달체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머리모양의 경우는 머리를 기르는 것으로써 이는 갱정유도인임을 알리는 표시이며 머리를 깎는 행위는 더 이상 갱정유도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청학동 사람들이 머리를 기르는 이유는 ① 단군의 이념과 사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최초국가라고 그들이 믿는 단군 조선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모발을 지금에 와서 단절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 ② 인간의 몸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모발을 잘라버리는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에 위배되기 때문이며, ③ 유교사상이 지닌 신체에 대한 소중함 때문이다. 신체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는 사상에서 나타났다. 또한 소년과 소녀들은 머리를 길게 땅아 댕기를 매고 성인 되면 상투를 올리며 여자의 경우는 쪽을 찐다. 집안에서는 유건을 쓰고 외출시에는 갓을 씌우므로써 그들이 갱정유도임을 표현하였다.

의류는 삼베가 주류이고 현재는 화학섬유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에는 외부세계와의 접점으로 인하여 개량한복이 도입됨으로써 개량한복을 입기도 한다.

Ⅳ. 결 론

청학동 사람들은 유불선합일(儒佛仙合一) 갱정유도(更定儒道)인 일심교(一心教)의 정신을 삶의 가치로 삼고 있다. 이들은 갱정유도의 사회적 표상으로써 집단생활을 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복식과 머리모양이 있는데 의복의 경우는 남녀 모두 전통 한복을 입으며 관혼상제의 전통복식을 지키며, 머리모양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소년, 소녀는 땅아서 댕기를 매고 성인은 상투나 쪽을 찐다. 이는 갱정유도의 정신과 전통의식을 한복과 머리모양을 통하여 표현되어진 것이다. 또한 인사법의 경우는 신을 벗고 그 위에 올라서서 손을 밑으로 내리면서 고개를 숙이며 담배 금지 등도 청학동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체계의 요소들이다.

이와 같이 청학동 사람들은 갱정유도라는 종교의 영향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체계와 사회체계를 형성하여 이를 복식과 머리모양, 생활방식, 교육 등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학동의 독특성은 교통문화의 발달, 전기·기술의 도입으로 인하여 대중화되었으며 현대에는 그들의 복식만이 그들만의 종교적 속성과 정신을 표현하는 한 무언의 요소로써 작용되고 있으며 또한 이는 관광산업의 일환으로도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수백년 또는 수천년 전부터 형성된 뿌리깊은 마을도 아니고 대대로 전승해 온 독특한 역사가 있어서도 아니지만 근대화와 서구화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서 청학동 사람들이 고집하고 지키려고 하는 의식과 표현양식이 전통적인 것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